문학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하브루타를 중심으로

서론

- 문학을 하브루타 러닝으로 공부할 때 장점
- 창의력, 사고력을 키우지 않는 교육의 문제점

본론

- 문학의 정의, 창의력, 사고력 정의
- 하브루타 러닝 정의 학습방법, 효과
- 문학을 주제로 한 하브루타 실제 (문학 작품 + 질문 만들기)

결론

- 요약

서론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사회는 청년들에게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생각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있다. 농업사회, 정보화사회에서나 적합한 주입식 교육을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받고 있다. 지속적인 주입식 교육은 다가 올 4차산업을 준비하는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혁신적인 방법의 학교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체계를 개인의 힘으로 빠른 시간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의 장르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4차 산업시대에 이전 세대의 교육을 현대 학생들이 받기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전 세대의 교육, 즉 주입식 교육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기 전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대한민국의 문화로 만들어야 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적합했으며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IT 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시대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카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당연히 현대의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달하는 것에 있어 장애물이 될 것이다. 현재 10대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시대를 앞서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시대의 교육을 진행한다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할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할 것이다.

유대인이 약 2천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0.2%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30%나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유대인의 하브루타 러닝으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가능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 중 IQ 순위가 2위이지만 노벨상을 한 명 밖에 수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방식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을 하브루타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4차 산업시대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재를 키워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유대인의 학습방법인 하브루타 교육은 창의력, 사고력, 언어력, 문학자의 사상, 공동체성을 얻을 수 있는 4차산업시대에 알맞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브루타 러닝이란 '생각하기 → 질문하기→ 대화하기 → 토론하기 → 논쟁하기 → 협상하기 → 정리하기 → 발표하기' 순으로 진행되는 완전 학습 방법이다.

하브루타 교육을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으로 4차 산업시대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학을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문학을 풍성하게 하고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4차 산업시대에 감동과 감정의 충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곧 한 나라의 사상과 감정, 생활방식이므로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으며, 이 유산을 다음 세대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문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하브루타 러닝으로 어떻게 문학을 공부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설명하고자 한다. 문학, 사고력, 창의력을 정의하고 하브루타 러닝에 대해서 알아본 후, 문학으로 하브루타 러닝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론 **1**

(1) 문학의 정의

우선 문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한다. 사전에 문학을 검색해보면 영어로는 'literature'이라고 하며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문학은 범위가 넓어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문학은 음악, 회화, 무용과 같은 예술과는 구별되고, 언어 또는 문자에 의한 예술작품이다. 이의 종류로는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일기, 르포르타주 등이 있다.

문학은 내용과 형식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을 수 있다. 이를 문학의 갈래라 하며, 문학 작품의 특성을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의 형식에 따라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으로 분류하거나 언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 기록 문학으로 나뉘고 표현 양식에 따라 서정, 서사, 극으로 묶거나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묶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더 자세하게 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며 문학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서양에서 플라톤의 국가(the republic)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학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문학이란 한시적인 감각 세계의 모방에 불과한 것으로서 영원한 이데아(진리)를 포착하는 데 무능력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poetice) 에서 비극을 중심으로 문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플라톤이 철학적 진리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문학에 열등한 지위를 부여한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철학적 진리와 구별되는 '보편적 진실'을 추구한다고 주장함으로 문학의 지위를 복원하려고 했다. 문학은 일종의 허구로서 '그럴듯함'의 세계, 즉 가능성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동양에서는 유협이 처음으로 문학을 '문심조룡'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 책에서 문이란 도를 실어야 한다는 재도지문의 이상을 피력했다. '문'에는 인간의 성정이 드러나게 마련이므로 '문'의 성취를 위해서는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학은 인간이 도를 깨닫는 길로서 간주되었다.

우리의 목적은 문학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고자 한다. 창의력과 사고력의 개념을 정의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다.

(2) 창의력의 정의

창의력이란, 지식백과에서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창의력과 창의성은 같은 말로 여기며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포함하는 확신적 사고의 관점에만 연구되었지만,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적 능력, 인성, 지식, 환경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창의성은 무의식적인 사고와 노력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며,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초인지적 사고, 의사결정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사고 유형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장 고차적인 사고능력으로 간주된다.

(3) 사고력의 정의

사고력이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말하며 사고력으로 자신이 받아들이 정보를 해석하며 가공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고력 안에 창의력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사고력 안에는 창의력 뿐만이 아니라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등을 포함한다.

이 능력들은 **4**차산업 미래에서 매우 중요한 자본이 되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인 이 능력들을 어떻게 해야 기를 수 있을까**?** 바로 유대인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 러닝으로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등을 기를 수 있다.[1]

[1] 네이버 지식백과 '인문'

본론 **2**

(1) 하브루타 러닝의 정의

하브루타란, 히브리어 '하베르', 즉 친구, 동반자의 파생어로 '동반의식 혹은 우정'이라는 의미이다. 하브루타는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짝, 학습하는 파트너, 혹은 짝을 지어 학습하는 실습 자체를 가리킬 수 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하브루타 러닝을 이렇게 정의한다. "사고의 확장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도달하는 학습방법", "두사람 사이의 상호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방법"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감으로써 교사로부터 최종적 해답을 찾기 위한 의존적 태도를 제거해 주는 학습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고등학교 교장은 하브루타 러닝을 "학생들의 자신감과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한 과제들에 대면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학습방법"이라고 말하며, 인지학습능력을 키우고 성공적인 과학자, 사업가, 혁신가가 되기 위한 최고의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아비엘 우잔(Aviel Uzan) 인텔 R&D센터 소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발한 생각,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학습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하브루타 러닝은 다양한 의미의 학습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하브루타 러닝 학습방법

하브루타 러닝이 사고력, 창의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길러내는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하브루타 러닝의 학습방법은 짝을 지어 생각을 바탕으로 '질문 → 대화 → 토론 → 논쟁 → 협상 → 정리 →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진리에 다가가는 완전학습 방법이다.

이 학습방법은 유대인들이 <토라>나 <탈무드>를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방법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언론기사, 고전, 동화 등의 보편적인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활용한다면 비즈니스화 되어가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감동과 감정의 충만을 느끼고 많은 나라의 사상과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학은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으며, 이 유산을 다음 세대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문학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수준을 넘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의문을 갖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해결되지 않는 내용은 질문을 만들면 된다. 이 과정은 개인으로서 새로운 통찰과정을 거쳐 지식을 확장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학습에 활용되기도 한다.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학습자들은 서로 상대방과 학습결과를 비교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심층적인 하브루타 러닝을 실시한다. 또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다시 탐색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깊이 사고하는 개인의 내적 성찰과정이 반복된다.

(3) 하브루타 러닝을 학습할 때 필요한 역량과 스킬

하브루타 러닝을 하기 위해서 반응스킬, 창의적 표현스킬, 코칭스킬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반응스킬, 상대방이 주장하거나 설명할 때 능동적인 자세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역량은 '경청', '열린 사고', '호기심', '질문'스킬 등이다.

두 번째로 창의적 표현스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스킬이다. 이때 '지식창조', '발표', '협상' 역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하브루타 러닝을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스킬인데, 그들은 아는 것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한다는 자세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잘 경청하며 격려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학습자가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생각과 고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것이 코칭 스킬이며 '칭찬', '모션'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하브루타 러닝은 후츠파 정신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창의성의 특별한 비결인데, 후츠파는 히브리어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활동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후츠파 정신을 '배짱있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4) 후츠파 정신

후츠파 정신은 '형식 타파, 당연한 질문의 권리, 섞임이나 어울림, 위험 감수의 정신, 목표지향의 정신, 끈질김의 정신, 실패로부터 배우는 학습' 이 일곱 가지 정신과 행동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형식 타파'는 모든 정형화된 형식과 격식을 파괴한다. 지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이나 행동의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으며 질서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문이 생기거나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나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것은 '당연한 질문의 권리' 요소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학교 수업시간이나 도서관에서도 여럿이 모여 질문하고 열정적으로 토론과 논쟁을 이어간다. 그들은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질문과 도전을 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성취한다.

또한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섞임과 어울림 특성이 강하다. 나라를 잃었던 역사를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울리는 것이 체질화되었다. 그저 서로 말을 건네고 안면을 익히는 것을 넘어 어떠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유대인들끼리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는다. 이것이 후츠파 정신의 요소의 '섞임이나 어울림'에 해당된다.

'위험 감수의 정신' 또한 후츠파 정신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위험 감수란 무슨 일이든 무조건 시작하고 덤벼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최선의 전략을 만들어 도전한다.

다음 요소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창업기업을 가질 수 있게 한 '목표지향의 정신'이다.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지혜와 전략을 기반으로 철저히 실행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루기 어렵거나 불가능이란 없다고 확신하고 목표를 향해 결단하고 도전한다.

유대인들은 모래사막 위에 세워진 국토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여 어디서든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기적을 이루고 키부츠(kibbutz)라는 집단농장을 만들었다. 이것들은 그들은 끈질긴 도전에 대한 증거이고 '끈질김의 정신'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실패로부터 배우는 학습'요소 이다. 두려워 하지않고 과감히 도전해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로부터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힘이고, 정신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력을 넓혀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하브루타 러닝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제 유대인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끈 하브루타 러닝의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5) 하브루타 러닝의 효과

하브루타 러닝은 학습자의 뇌를 격동시키고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그 이유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질문과 토론, 논쟁만큼 뇌를 움직이게 하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토론과 논쟁은 뇌를 개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이유는 법정논쟁을 예로 들어 보자.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논리적 주장하여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로써 하브루타 러닝은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하브루타 러닝은 생각을 기반으로 질문으로 말문을 터는 학습방법이며 질문을 통하여 다른 생각, 새로운 방법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프레임을 뛰어넘어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창의력이 길러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하브루타 러닝은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고, 토론을 준비해야 원활한 학습, 질문, 토론, 대화가 가능한 학습방법이다.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길러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경청 능력, 설득 능력이 함양된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브루타 러닝으로 교육한 덕분에 약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으며 노벨상 수상자들 중 유대인이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 중 0.2%를 차지하는 약 1500만 명 정도인데 화학, 경제, 문학, 물리, 생리학 및 약학과 평화상부문을 194명이 휩쓸었으며 전체 수상자의 22%이다. 이것은 하브루타 러닝 교육이 한 몫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본론 **3.** 문학을 활용한 하브루타 러닝의 실제 모형

지금부터 하브루타 러닝의 실제를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다. 하브루타 러닝은 짝이 없어도 본문을 짝으로 대체하고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 하브루타 러닝을 학습할 경우 그 후에 짝을 찾아 대화와 토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본문으로 하브루타를 학습할 경우, 본문을 읽고 내용 중 단어의 개념을 질문하고 문맥을 분석, 의미를 파악한다. 그 후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짝에게 설명하고 짝과 비교를 하며 대화와 토론을 펼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으로 구체적인 학습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먼저 이 시를 잘 읽어보고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고 문맥을 분석하며 질문을 만들어 본다. 자신이 이 시를 읽으며 가장 크게 드는 의문으로 질문을 만들어보아도 좋고, 화자를 자기 자신에 대입하여 질문을 만들어보아도 좋다.

1. 님은 왜 나를 보기가 역겨운 것일까?
2.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창작한 것인가?
3. 내가 '님'이라면 화자를 왜 사랑해줄 수 없는가?
4. 이 시 속 화자를 자기 자신으로 해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다면?
5. 이 시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번은 시의 맥락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고, 2번에서 5번은 이 시를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자신에 빗대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위의 질문과 같이 스스로 답해보고 짝과 함께 비교해 보며 대화와 토론을 나누어 보도록 하자.

문학과 하브루타 러닝이 접목되었을 때, 단순한 정보나 지식 뿐만 아니라 문학이 창작된 시대, 나라를 정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문학자의 사상을 알 수 있다. 이를 하브루타 러닝 방법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질문들을 만들어내어 답하기를 반복한다면 창의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교육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2]

[2] 유대인의 하브루타 러닝 - 최일수 (도서)

결론

문학을 하브루타 러닝으로 학습하여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문학 작품들을 입시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하브루타 러닝으로 학습을 한다면 창의력과 사고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만들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대화한다면 향상된 창의력과 사고력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빛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교육해 온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발빠른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있는 지식들을 암기하고 시험치고 잊어버리는 교육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답을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감상문을 친구들과 나누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하기를 하며 토론을 하는 하브루타 러닝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하브루타 러닝의 진행 방식은 ~이다. 이를 기억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대인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문학으로 하브루타 러닝을 교육받는다면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각 시대, 각 나라별 상황과 사상을 알 수 있으며, 문학자의 사상을 통해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최대로 기를 수 있는 하브루타 러닝을 기억하고,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하브루타 러닝을 수업 시간에 적용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들을 하브루타 러닝에 적용시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하브루타 러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이 풍부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을 기대해 본다.